

## 부식성 식도협착에 대한 식도 재건술 (II)

국립의료원 흉부외과

정승혁·강경훈·김병열·이정호

본원 흉부외과에서는 1959년부터 1982년까지 24년간에 걸친 부식성 식도협착증에 대한 344수술례를 보고한 바 있으며, 1983년 1월부터 1995년 2월까지 69례의 부식성 식도협착증 환자에서 결장을 이용한 식도재건술을 시행하였다. 이 중 남자는 32명, 여자는 37명이었으며, 연령은 4세에서 65세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36.4세였다. 부식제의 종류로는 산성이 37례 (53.6%), 알칼리성이 31례 (44.9%)였다. 부식제의 섭취에서 수술까지의 기간은 32례 (46.4%)가 1년이내였고, 1년에서 2년사이가 14례 (20.3%)였으며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도 18례 (26.1%)였다. 3례 (4.3%)에서 협착부 반흔조직에 상피세포암이 발생하여 개흉술을 통한 식도절제술을 동시에 실시하였고, 나머지 66례에서는 식도절제술을 시행하지 않고 흉골하 식도-결장-위 문합술을 시행하였다. 64례에서 말단회장부를 포함한 우측결장을 순연동방향으로 연결하였고, 5례에서 좌측결장을 이용하였고, 이 중 2례는 순연동식, 3례는 역연동식으로 연결하였다. 말단회장을 포함한 우측결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중앙결장동맥의 좌측 분지를 절찰 하지 않고 보존하므로써 보다 근위부에서 횡행결장을 절단하여 이식결장의 직선화를 시도하였다. 문합부 누출이 가장 흔한 합병증(10례, 14.4%)이었고 이 중 8례 (11.6%)가 경부, 2례 (2.9%)가 회장-결장 문합부에서 있었다. 수술사망율은 2.9% (2례)였고, 사망원인은 각각 패혈증과 중격동염이었다. 추적기간은 6개월에서 12년까지 평균 2.5년 이었으며 기간중 사망례는 없었고, 67명 중 59례 (88.1%)에서 정상 식사가 가능하였고, 5례 (7.5%)에서 유동식이 가능한 중증도의 연하곤란을 보였으며, 3례 (4.5%)는 입을 통한 식이 섭취가 불가능하였다.